

AUTHOR 변종길

TITLE 고신 교회와 개혁주의 문화관

IN 개혁신학과 교회

vol.19 (2006): 61-77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성장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즉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4:12).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4:13).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돌보고 잘 양육해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에 따라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도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4:16).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목회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이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겨도 빛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교인들 중에도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는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역이다. 그것은 사람의 사역이기 전에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람에게 맡겨놓고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신다. 교회가 잘못되거나 않을까 그리스도가 더 염려하신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기에 그가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실 것이다. 그리므로 지도자들이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 사역자는 목자장이 나타나 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벧전 5:1-4).

고신 교회와 개혁주의 문화관

변종길(신약학)

서론

우리 고신 교단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고신 교단은 출범 초기부터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 및 이에 입각한 개혁주의 생활을 강조해 왔으며, 또한 동시에 개혁주의 문화 건설을 주창해 해왔다. 곧 이 땅에 성경에 입각한 개혁주의 문화 건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사명임을 일깨우고, 각자가 치한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 문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해 왔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문화관이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먼저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개혁주의 문화관 논쟁에 대한 선구자적인 논의를 제공했으며 오늘날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문화관에 대해 신학적으로 제일 날카로운 이의를 제기한 클라스 스킬더의 문화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또한 이들에 대해 명확한 분석과 평가를 제공한 다우마 교수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문화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필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자 한다.

1.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文化)는 단어는 영어로는 culture, 독어로는 Kultur, 화란어로는 cultuur라고 하는데, 모두 다 라틴어 동사 colere에서 온 것들이다. colere는 ‘(집을) 짓다, (밭을) 갈다, 돌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¹⁾

이런 의미의 문화 활동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동산에 두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주셨다. 그것은 곧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것이었다(창 2:15). 여기서 ‘다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אָבָדֵךְ)’는 ‘노동하다(to labour), 일하다(to work)’는 뜻을,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르(שָׁמַרְתָּ)’는 ‘지키다(to keep), 경계하다(to watch), 보호하다(to guard)’는 뜻을 가지고 있다.²⁾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할 일 없이 지낸 것이 아니라 노동, 즉 문화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화 활동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있었으며, 그 자체는 죄와 상관없는 신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축복이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 다스리라”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다. 곧 문화 활동에 대한 사명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에 대한 사명은 인간의 타락 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문화 활동은 에덴동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강조해 왔다. 우리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문화적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며, 개혁주의 문화 건설을 촉구해 왔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문화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해왔는가? 특히 화란에서 많이 발전된 개혁주의 문화관이란 어떤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화란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와 클라스 스킬더의 문화관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2.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

개혁주의 문화관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였다. 그의 문화관은 화란의 자유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칼빈대학, 남아의 포체프스트롬대학과 일본의 고베신학교, 그리고 한국의 고신대학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이퍼는 그의 문화관을 1895년 9월 1일부터 1901년 7월 14일까지 신학 잡지인 「드 헤라우트」(De Heraut)에 매주 연재했다. 그리고 이 글들을 모아 「일반 은총」(De Gemeene Gratie)이란 제목의 3권의 책으로 출판하였다.³⁾ 카이퍼는 이 책에서 그의 깊고 폭넓은 문화론을 전개하였다. 그 개요에 대해서는 필자가 전에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으므로,⁴⁾ 여기서는 그 핵심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Cf. J. W. Fuchs & E. Michiels, *Kramers' Woordenboek Latijn* (Amsterdam/Brussel: Van Goor Zonen, 1985), s.v. *colo*.

2)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 tr. by S. A. Tregelles (Grand Rapids, Mich.: Eerdmans), s.v.

3) Abraham Kuyper, *De Gemeene Gratie*, Leiden: D. Donner, I(1902), II(1903), III(1904).

4) 변종길,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에 대한 재고찰”, 「기독교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한석 오명세 총장 은퇴 기념 논문집; 1996), pp. 197-212.

1) 출발점: 일반 은총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의 출발점은 ‘문화적 사명’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었다. 인간의 타락 후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의 문화관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문화관을 노아의 홍수 후의 언약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후에도 인간에게 베풀신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풀시는 은혜 곧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화 활동이 가능해진다. 카이퍼는 그 후에 낙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논의를 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은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카이퍼에게 있어서 인간의 문화 활동이 덜 강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폭넓은 일반 은총의 빛 아래 인간의 문화적 사명이 기초되고 자극된다. 그래서 카이퍼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활동을 매우 강조하고 촉구하였다.

2) 하나님의 형상

카이퍼는 옛 신학이 너무 개인의 구원에만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곧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논할 때 사회적 요소를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카이퍼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문화 발전의 ‘씨들 (kiemen)’을 심어 놓으셨다. 이 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발아(發芽)하고 성장(成長)한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위(當爲)이며 필연(必然)이다.

이러한 인류 발전은 ‘독자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구원만 목표로 하신 것이 아니라 문화 발전도 목표로 하셨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에 필요한 능력과 가능성을 부여하셨다.

3) 하나님의 예정

카이퍼에 의하면 이러한 인간의 역사 발전은 ‘하나님의 예정’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예정이란 단지 택자들의 구원(특별 은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심어 놓으신 것들이 씩이 나오고, 발전하고, 충만한 발전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4)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발전된 문화는 종말 때에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종말 때 온 세상이 불타는 가운데서도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곧 잠재해 있는 생명의 씨들, 사물의 근본 의미라고 한다. 카이퍼는 이를 위해 툴립과 달리아를 예로 든다. 이런 것들을 심으면 먼저 씩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 꽃이 핀다. 겨울이 오면 농부가 이것들을 잘라 버리거나 뽑아 버린다. 이듬해에 날이 따뜻해질 때 농부가 그 씨를 꺼내어 심으면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씩이 나오고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일반 은총의 모든 식물이 잘라져서 거두어지지만, 새 땅에서 이 일반 은총의 씨가 다시 피어날 것이며 더욱 번창할 것이다.⁵⁾

카이퍼는 이것을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4,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다. 24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되어 있고, 26절에 다시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라고 말한다. 카이퍼는 이 구절들의 말씀이 종말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한다고 본다. 곧 여기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란 ‘우리 인류의

5) *Gemeene Gratie*, I, p. 456.

선행하는 발전 가운데서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본다. 곧 ‘만국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 도달한 일반적인 민족 발전의 정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⁶⁾

그러나 호레이다너스는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최후의 날 후에, 곧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땅의 왕들이 아직 있어서 그들의 탁월성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지상 시대에 하나님이 왕들과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 각 분야의 유력한 자들을 회개케 하시며, 또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에 협력하게 하신다. 영원에서는 이것 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⁷⁾

그러나 카이퍼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이 세상에서의 일반 은총의 열매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소득(blijvende winste)’ 곧 ‘지속적인 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하면 인간의 문화적 활동은 하나님의 영원 전 예정에 뿌리박고 있으며, 창조시에 그 능력과 씨들이 주어졌으며, 역사의 발전에 따라 씩이 나고 꽂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들은 마지막 심판의 불에도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까지 이전되는 영원한 소득이 된다는 것이다.

6) *Gemeene Gratie*, I, p. 460.

7) S.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Amsterdam: H. A. van Bottenburg, 1925), p. 429.

3. 카이퍼의 문화관에 대한 비판들

1) 클라스 스키lder의 비판

이러한 카이퍼의 문화관을 비판한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클라스 스키더(Klaas Schilder, 1890-1952)가 있다. 그는 1947년에 「그리스도와 문화」(*Christus en cultuur*)란 책을 출판하였는데,⁸⁾ 이 책에서 그는 먼저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에 대한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1) 카이퍼는 ‘타락 이후’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타락 이전의 낙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카이퍼는 우리에게 ‘허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타락 이후에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거기서 ‘일반 은총’ 개념을 끄집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 ‘명령된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카이퍼의 문화관은 지나치게 낙관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그래서 사명감 보다는 자기만족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스키더는 ‘일반 은총(gemene gratie)’이라는 말 대신에 ‘일반 명령(gemene bevel)’ ‘일반 소명(gemene roeping)’ 또는 ‘일반 사명(gemene mandaa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에 초점을 두며 창세기 1장 26-28절에 많은 비중을 두

8) K. Schilder, *Christus en cultuur*, 5e druk, (Franeker: T. Wever, 1977[제2판: 1947]). 영역본으로는 G. van Rongen과 W. Helder가 번역한 *Christ and Culture* (Winnipeg: Premier, 1977)가 있다.

고 있다.⁹⁾

2) 다우마 교수의 평가

화란 깜뻔의 다우마(J. Douma) 교수는 1966년에 그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일반 은총」(Algemene Genade)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¹⁰⁾ 이 책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클라스 스킬더와 칼빈의 일반 은총론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한 개념비적인 논문이다.

그의 방대한 연구 중 제일 큰 공로는 카이퍼와 스킬더의 문화관은 그 근본에 있어서 사실상 많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카이퍼의 문화관과 스킬더의 문화관은 대개 정반대로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사실은 그 근본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계발 사상(啓發思想, ontluikingsgedachte)’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부여하신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발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 다 문화적 사명을 적극 주장하였다. 차이점이라면 카이퍼는 불신자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에, 스킬더는 불신자들의 문화 속에 사탄적 요소가 있음을 간파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킬더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와 불신자들의 문화를 서로 대립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스킬더도 참된 기독교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한 점에서는 마찬 가지다. 스킬더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공통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점이 그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킬더는 이러한 기독교 문화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

9) 클라스 스킬더의 문화관에 대해서는 변종길, “클라스 스킬더의 문화관”, 「개혁 교회의 정로」(고려 신학대학원 출판부, 1999), pp. 99-117을 참조하라.

10) J. Douma, *Algemene genade. Uiteenzetting, vergelijking en beoordeling van de opvattingen van A. Kuyper, K. Schilder en Joh. Clavijn over 'algemene genade'*,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66(초판), 1981(4판).

으며, 교회는 마치 온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벽난로(vuurhard)’와 같다 고 말한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에게서는 이러한 ‘계발 사상’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칼빈도 물론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문화 활동을 인정한다. 그러나 칼빈에게서는 이것이 대단히 조심스럽고 절제된 형태로 나타난다. 칼빈에 의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인간이 ‘항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창세기 2장 15절도 칼빈은 문화적 활동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칼빈에 의하면, 사람은 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먹고 마시며 잠자는 것으로 삶을 허비하는 것보다 더 자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1) 우리가 땅을 너무 착취하면 안 된다. 2)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그대로 또는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¹¹⁾

그래서 다우마 교수의 결론은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카이퍼에게는 특징적이고, 스킬더에게는 제한된 형태로 나타나며, 칼빈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발 사상’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우마 교수는 자신의 문화관으로 ‘나그네 인생(vreemdelingschap)’을 주장하였다.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자면 ‘외국인 됨’이라고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외국인(ξένοι)’이란 단어는 ‘낯선 사람(strangers, aliens)’을 뜻하며, ‘나그네(παρεπιδημοι)’란 단어는 ‘임시 거주자(sojourners, temporary residents)’를 뜻한다.¹²⁾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또 ‘임시 거주

11)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 by J. King, I (Grand Rapids, Mich.: Eerdmans), p. 125(창 2:15 주석).

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따라서 카이퍼나 스킬더에서처럼 문화 활동에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3) 다우마 교수의 견해에 대한 반응

이러한 다우마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드 프리스(W. G. de Vries) 목사¹³⁾와 캄프하이스(J. Kamphuis) 교수¹⁴⁾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캄프하이스 교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다우마 교수가 단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고 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정복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 곧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그리고 한편, 아펠도른의 벨러마(W. H. Velema) 교수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는 문화적 사명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¹⁶⁾

4. 필자의 평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에 어떠한 견해를 취해야 하겠는가?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정리하면

12) Cf.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rev. and ed. by F. W. Danker (Chicago/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s.v.

13) W. G. de Vries, “Cultuur-taak en vreemdelingschap,” in: *Petah-ja* (jan. 1967), pp. 5-8. 이 글에 대한 N. Bruin 목사의 반응과, 이에 대한 De Vries 목사의 답변에 대해서는 각각 동 잡지, pp. 45-48 및 p. 50f., pp. 51-55를 보라.

14) J. Kamphuis, “Het ‘cultuur-mandaat’ in discussie,” in: *De Reformatie* 42(1967), pp. 233f., 241f., 257f.

15) 이에 대한 J. Douma의 답변은 그의 *Algemeene genade*, 제2판 이후의 pp. 369-390에 “Cultuur en vreemdelingschap”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6) W. H. Velema, *Ethic en pelgrimage* (Amsterdam, 1974).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동시에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그냥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천국에 가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길 가는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며 임시 거주자이지만 또한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일하는 임시 거주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전도 사명’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 최고 최대의 사명이다. 그래서 보통 ‘지상(至上) 명령’으로 불린다. 둘째는 ‘문화적 사명’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적 사명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처럼(창 9:1),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도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타락 후에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았다.¹⁷⁾ 문화 활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말해지고 있다. 곧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

17)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만 있고 “땅을 정복하라. … 다스리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특이하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것이 강조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한다(고전 10:31).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은 다 문화 활동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타락 후의 인간의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

2) 문화적 사명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적 사명은 타락 후에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다. 물론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의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배하지도 않으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연하게 문화 활동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카이퍼나 스킬더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스킬더는 그의 문화관을 전개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의쳤다. 카이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너무나 문화에 집착하고 당시에 발전하고 있던 문화에 매료되어 사변적인 문화신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도 문화적 사명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곧 우리는 이미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 살고 있다.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이 더 많다. 그래서 타락 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되었다(창 4:26). 문화의 발전은 오히려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발견된다(창 4:16-22).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난 후 성을 쌓았다(건축).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음악). 그리고 두발 가인은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기계 문명).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 발전에 열심이었고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셋의 자손은 그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만 되어 있다(창 4:25-26). 곧 그들

은 신앙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 세상은 마치 불난 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불이 나기 전에는 정원을 갈고 꽃을 가꾸며 아기자기하게 살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불이 나고 말았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하겠는가? 정원 가꾸는 일을 계속해야 하겠는가? 꽃을 다듬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하겠는가? 아니다. 불 끄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곧,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즉, 전도 사명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에덴동산에는 없었던 전도 사명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에 대해 화란의 개혁신학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밀하자면 창세기 1장은 읽고 깊이 생각했지만,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3장은 대충 읽고 넘어갔다는 말이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많이 말하지만,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명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창세기 1장에 주어진 문화적 사명을 이를 것을 강조하고 촉구했던 것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은 개혁주의 신학의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 그래서 인죄론이나 구원론 등에서는 매우 심도 있게 다뤄지지만, 이상하게도 문화론에서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래서 화란에서 발전된 개혁주의 문화관은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죄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괴상적인 문화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화란 개혁 교회는 문화적 사명은 강조했지만, 전도 사명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였다. 그 결과 전도가 약화되고, 나아가서 교회도 약화되고 말았다. 이는 다시금 기독교 문화 활동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문화적 사명이 없다고 말할 수

는 없다. 비록 불이 나서 불 끄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정월 가꾸는 작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의 ‘불난 집’ 비유가 100 퍼센트 정확한 것은 아니다. 좀더 근접한 비유를 들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은 병원이며 사람들은 환자들이다. 급성환자들이 아니라 대개는 만성환자들이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70~80년이 걸린다. 그러니 우리는 환자들 치료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들을 다 팽개칠 수는 없다. 중증환자이긴 하지만 아직은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이다. 그러니 밭을 갈고 노동을 해야 한다. 정원을 가꾸고 한 번씩 노래를 부르고 음악회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음악회를 우리는 ‘환자들의 음악회’ 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의 음악회’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문화 활동을 우리는 사형수들의 문화 활동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타락 후의 인간에게 있어서 물론 문화 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전도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타락 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화적 사명을 무분별하게 강조하는 카이퍼나스 퀄더 같은 이의 주장은 잘못이다. 절제 있는 문화 활동, 조심스런 문화 활동을 말한 칼빈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다.

3) 이 세상에서의 문화 활동의 열매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전된다는 주장은 문제 많다.

카이퍼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의 문화 활동의 열매 중에서 긍정적인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전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소득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 세상에서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격려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가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벧후 3:10). 여기서 체질(體質)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스토이케이아(στοιχεῖα)’인데, 이것은 ‘만물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¹⁸⁾ 옛날에는 이 것을 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요즈음은 그보다 더 작은 것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어쨌든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에 질적으로, 구성요소에 있어서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이 세상을 ‘개조’하거나 ‘리모델링’ 한 것은 아니다. 완전한 재건축이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근본적인 변화일 것이다. 루터파 주석가들은 ‘새로운 무에서의 창조(nova creatio ex nihilo)’를 말하는 경향이 있고,¹⁹⁾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대개 ‘새로운 질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²⁰⁾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0-12절의 말씀을 고려할 때 ‘무에서의 창조’ 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물의 구성 요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물질 자체가 달라지고 물리 법칙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전된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이전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택함 받은 자들의 ‘영혼(ψυχή)’이다. 곧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육체는 죽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 물론 영혼은 이 세상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갈 것이다. 기억을 다 상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기억이 있어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계

18) Cf. Bauer, *Lexicon*, s.v.

19) Cf. G. C. Berkouwer, *De wederkomst van Christus I* (Dogmatische Studien; Kampen: J. H. Kok, 1961), pp. 277f.

20) 예를 들면, S. Greijdanus는 계 21:1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단지 ‘형태의 변화(vormverandering)’ ‘관계들의 변경(wijziging van verhoudingen)’이라고 말한다(*Openbaring*, p. 416).

5:9-10, 7:10). 이 세상 역사의 기억은 보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전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의로우신 통치를 친양할 것이다(계 11:17-18, 15:3-4). 따라서 이전되는 것은 ‘영혼’이며, 영혼의 ‘기억들’이며 ‘정보들’이다. 그러나 물질들은 이전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딤전 6:7).

(2)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이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로 시작한다(1:2). 여기서 ‘헛되다(하벨)’는 것은 영원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영속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유익이 없고 무익하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닥치는 죽음 때문이다.

그런데 전도서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즉,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해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새 것’이다. 그 분이 행하시고 베푸시는 것은 ‘새 것’ 곧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곧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진리와 의이다. 따라서 카이퍼가 말하듯 이 인간이 행하는 문화 활동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행하시는 구원 활동이 영원하다. 영생과 진리와 구원의 열매가 영원한 소득이 된다. 따라서 카이퍼의 주장은 사변적인 문화 철학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특히 전도서의 전도자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사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문화 활동이 새 예루살렘에까지 이전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문화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주장은 칼빈의 견해와도 다르고, 화란 내에서도 스킬더와 흐레이디너스에 의해 비판받은 사상이며, 다우마와 펠러마도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부 지식인들이 개혁주의 문화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과 칼빈의 신학에 바탕을 둔 개혁주의 문화관이 아니라 19세기 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변적인 문화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 론

마지막으로 필자의 질문은 이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단은 어떤 문화관에 기초해 있는가? 카이퍼의 문화관인가? 스킬더의 문화관인가? 아니면 칼빈의 문화관인가? 우리 고신대학교는 어떤 문화관에 기초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올바른 문화관의 정립과 올바른 신학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 신학자의 견해를 따를 것이 아니다. 카이퍼나 스킬더나 또는 어떤 위대한 신학자의 견해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성경적인 문화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신 교회의 입장이며, 또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